아름다운 배움, 이미용

성복8 S기쁨2 소속 김선영 학습자

지구촌 평생교육원 이미용반에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어갑니다. 처음 미용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남편의 요청때문이였습니다. 주말에 이발소에 사람이 많아 항상 기다려야 한다며 뒷머리라도 내가 정리해주면 가는 횟수를 한달에 한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해서였습니다. 지구촌교회는 2년 전 수지로 이사오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지구촌소식을 통하여 선교에도 미용봉사가 많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도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모로 미용은 유익하다고 느꼈기에 평생교육원 브로슈어를 여러 달 눈 여겨 보다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

처음에는 원래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딸도 안 키워 봐서 가발의 섹션 나누기도 힘들었지만 “늦게 시작한 것이 아예 안 하는 것 보다 낫다“ 는 격언을 좋아하는 저는, 미용도 잘할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 또 다음 학기 계속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미용 담당 강사님께서 선뜻 요양병원 봉사를 제안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몇 번 거절을 하였지만 강사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.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신다고 설명을 하셔서 요양병원 봉사도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한 층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 다들 쳐다 보시고 계셔서 너무 긴장되고,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몇 분을 미용을 해 드렸는데, 하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미용 배우기를 잘했다는 보람이 느껴졌는데 그 보람은 그 동안에 맛본 어떤 성취감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뿌듯함으로 기억됩니다.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교회 등록한 후 처음으로 올 해 하기 선교에도 미용봉사 팀으로 신청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. 파마를 더 손에 익히고 갔어야 했는데 그 실력이 숙달이 안되어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더 배워 나가야 하는지를 경험한 좋은 기회였습니다.

미용반에는 한 반에 15명이 정원인데 그 중 반 이상이 계속 재수강을 할 만큼 인기가 많고 각자가 열의가 대단합니다. 직접 자원하여 모델이 되기도 하고, 남성 커트 모델로 남편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, 방학 때는 아이들을 데려 오기도 하는데 강사님께서 가족 미용의 경우 그 가족의 두상이나 모발을 특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도 보여주셔서 대단히 실제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매번 수업 내용도 미용 반 시작 동기 집사님이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주제별로 밴드에 올려 주어 수강생 들이 복습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.

미용반에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는데 바로 축복송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.

“축복합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~ 축복합니다. 주님의 사랑으로~

수강생 중에는 타종교인도 있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다같이 축복 송을 할 때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. 강사님께서 오늘도 선창하십니다. “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우트 할 때 까지 잘 준비합시다!!! “